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95년도 교회 일꾼 임명

오늘 IV부 예배시 제직 및 교구일꾼
18일 찬양예배 시 찬양대원, 교사, 양육위원
12월 25일에는 특별 제직회 - 결산 및 예산
12월 26-29일 송구영신집회, 충현기도원에서
최인근·홍창민 목사 사임에 따른 후속인사도

교회는 1995년을 맞으며 새로운 일을 위한 인사조직과 함께 새로운 일직자들에게 대한 임명식을 실시한다. 오늘 주일 IV부 예배시에 제직과 교구일꾼에 대한 임명이 있고 다음주(18일) 찬양예배 시에는 찬양대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장년1-3부, 소망부, 사랑부, 예배다부, 영어예배부, 탁아부, 예신부 교사들과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의 임명이 있게 된다.

이미 지난 11월 6일의 각 위원장 및 부서장을 당회에서 임명했고, 지난 11월 13일자 『주간충현』에는 1995년도 교구일꾼 명단이, 11월 20일자에는 1995년도 남녀 서리집사 명단이 발표됐다. 오늘 남녀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의 임명은 이미 발표된 명단과 그 외에 누락된 사람들이 추가로 임명된다.

한편 각 부 찬양대원 및 교회학교 교사,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들은 오늘 『주간충현』 3, 4면에 발표되는 명단을 참조하면 된다.

또 교회는 최인근, 홍창민 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그 후속 인사를 지난 12월 7일(수), 정기당회에서 발표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또 새로운 해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또 한해 동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도의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도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도 잘해야 할 것이다.

· 지도교역자 인사이동

- 예배위원회 : 이종대 목사
- 제1교육위원회 : 김창수 목사
- 제2교육위원회 : 장경철 목사
- 새가족위원회 : 윤삼중 목사
- 청년 1부 : 정광옥 목사
- 고등부 : 김창수 목사
- 중등 2부 : 장상기 목사
- 초등 5부 : 김필수 강도사
- 초등 4부 : 윤인숙 전도사
- 초등 3부 : 오인숙 전도사
- 장년 1부 : 이한수 목사
- 제 7 교구 : 현상민 목사

· 교구·지역장 변동사항

- 2-2 교구 : 김의철 장로(8, 9지역)
이제인 집사(10지역)
- 3-1 교구 : 정세용 집사(2지역)
양승길 집사(4지역)
이종석 장로(5지역)
김달현 집사(6지역)
박상준 장로(7지역)
- 3-2 교구 : 김희선 집사(1지역)
- 6-1 교구 : 장철환 집사(5지역)

금년도와 신년초
교회 주요행사 일정표

- 94.12.11(주)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 94.12.18(주) 교사·찬양대원 임명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
- 94.12.25(주) 성탄절 축하예배 특별제직회 교회학교 수료·진급식
- 94.12.26(월)~12.29(목) 송구영신집회(충현기도원, 신성종·김용기목사)
- 95.1.1(주) 신년예배(I~IV부)
- 95.1.4(수) 정기당회
- 95.1.8(주) 공동의회 (신년도 예산)
- 95.1.13(금) 학습·세례식
- 95.1.15(주) 성찬식(I~IV부)

김정우, 이한수목사,
협동목사로

권성수 목사는 사임

교회는 김정우 목사와 이한수 목사를 협동목사로 봉사하는 것을 결정했다.

김정우 목사(43세)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석사(Th. M), 구약학 박사(Ph. D) 학위를 받았다. 현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이다.

이한수 목사(41세)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에버턴대학 대학원에서 신약학 석사(Th. M), 신약학 박사(Ph. D) 학위를 받았다. 현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이다.

한편 그동안 청년2부 지도교역자로 수고하던 권성수 목사는 사임하였다.

원용철 안수집사 복직

지난 12월 정기당회에서는 제4대 안수집사로 그동안 휴직중에 있었던 원용철 집사를 1995년 1월부터 안수집사 복직을 허락키로 했다.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12월 18일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한 직임을 받고 오랫동안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헌신 봉사한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12월 18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포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연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 연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또는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으로 인정하되 군복무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금년말로 만 70세가 되는 시무권사들의 은퇴식도 이날 함께 실시한다.

은퇴자 및 근속자 명단은 지난 11월 20일자 『주간충현』을 참조하면 되는 데 명단에 누락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은퇴자 / 권사 / 김복희
- 근속자 / 권사 15년 / 김옥선 최혜영
서리집사 15년 / 임선애
안수집사 10년 / 이갑재 김용석 임정우
서리집사 10년 / 김용대

한편 12월 18일 은퇴식 및 포상식에 해당하는 자는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복음전파를 위한 성탄절 십자탑

가칠봉에서 복녘을 향해 불 밝혀

12월 1일, 군전도회에서 방문, 점등식

복녘 땅에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 트리용 십자탑에 등부전선 최전방 육군 OO사단 가칠봉에 점등됐다.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지난 12월 1일 육군 OO사단 가칠봉을 방문하여 십자탑 점등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점등식에는 군전도회장 김재명 장로를 위시하여 장경철, 이조용, 장우천 목사와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군전도회는 지난 92년 최전선에 13번째 십자탑을 가칠봉에 설치했고 매년 방문을 하고 있으며 군의 복음화와 북

한선교를 위해 위문 방문 및 진중세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예배설교에서 장경철 목사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복녘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도록, 이 빛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특히 이번 방문 길에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동 사단대 OO대대의 '사랑교회'의 완공된 모습을 살펴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 십자탑은 1995년 1월 8일까지 밝히지게 된다.

요 한계시록 6장의 계시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인과 두번째 인간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제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인을 떠심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1절) 5장에서 예수님은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인을 찢는 이유는 비밀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보면 인비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들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한번 말고 나서 도장을 딱 찍고, 또 한번 말고서 도장을 찍고, 세번째 네번째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곱 군데나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비밀은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공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개하시는 것만 알 수 있지 그것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첫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스가랴 6장 1-8절을 봅시다. 거기에는 두 산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말들, 즉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말들의 색깔에는 의미가 없고 넷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말들은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는 세계 사대 강국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와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강조점을 색깔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흰 색은 성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정복을 뜻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붉은 색은 피의 색입니다. 그런데 피를 제일 많이 흘리는 때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붉은 색은 피흘림, 곧 전쟁을 뜻합니다. 세번째 나오는 검은 색은 기근에 의해서 사람이 굶어죽게 될 때의 색입니다. 또 청황색은 시체,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전염병(온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의 계시는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과 맥이 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뜻은 마태복음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기근에 관한 내용이고(7절), 세번째는 자신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7-9절). 넷째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9, 10절). 특별히 29절에 보면 자연계까지도 큰 변화가 생겨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만 언급한 것인데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본문의 일곱 인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 재앙이라는 것, 즉 전체를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좀더 그 뜻이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흰 말이 있고 그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과연 그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장차 오실 왕이신 승리자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와 외인화, 즉 복음화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마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될 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백마 탄 자는 천사장의 “오라” 하는 부름을 듣고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외인화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책들을 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그와 정반대의 견해, 즉 더 많은 보수주의 신학

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곱 인 재앙에 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재앙 속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까? 더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옳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충현강단



일곱 인 재앙(1) (계 6:1-8)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데 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화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길으로 보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화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왕만이 쓰는 왕관을 쓰셨습니다. 본문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디아데마)이 아니고 승리자가 흔히 쓰는 면류관(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적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흰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흰 말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정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복자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살후 2:8-10).

또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복에 대한 대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양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2. 두번째 인을 떠심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3, 4절) 본문에 보면 붉은 말 탄 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우리는 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뿐입니다. 또한 붉은 말 탄자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작은 보통의 칼이 아니라 아주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고 하셨던 그 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칼(검)은 원문에 ‘크리노’인데 이것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과 선, 불의와 의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알곡과 쟁쟁이를, 좋은 고기와 썩은 고기를 나누는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검은 살상, 죽음, 전쟁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는 이 지구를 40번 완전히 박살을 낼 만큼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괜히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본문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텐데 이것이 허락을 받아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전쟁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마지막 결재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결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큰 전쟁에 대한 마지막 결재는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별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하지 아니하시면 그 큰 칼을 사용하는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5-39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거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백마를 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한지라도, 또 혹은 홍마를 타고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핵전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적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 그 날을 준비하며,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승리자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도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명단 중 누락자

1-2 교구

· 권찰 / 윤선희 이길영 장은순 최순현
· 남집사 / 고현준 여완구 이치훈

2-2 교구

· 권찰 / 김정자
· 남집사 / 김광중

3-1 교구

· 권찰 / 이정림
· 남집사 / 오무일

3-2 교구

· 남집사 / 안창진 이상문
· 여집사 / 김명희 김윤옥 박미향 성미자

4-1 교구

· 여집사 / 공미경 김명자

4-2 교구

· 남집사 / 최원규

5-1 교구

· 권찰 / 박영희

· 남집사 / 노은영

5-2 교구

· 남집사 / 이경희

· 여집사 / 김향숙 양혜영

6-1 교구

· 여집사 / 함은숙

7-1 교구

· 남집사 / 이승옥

· 여집사 / 윤경희

7-2 교구

· 남집사 / 문원준 신명훈

· 여집사 / 강소하 고옥석 인영자 조춘자

8-1 교구

· 남집사 / 김재덕

· 여집사 / 김영자

8-2 교구

· 남집사 / 천현근 · 여집사 / 이태순 하영자

9-1 교구

· 권찰 / 김연옥

9-2 교구

· 권찰 / 강인심 김영금 이경숙 이은숙 임인자

· 남집사 / 양일승

· 여집사 / 황옥엽

11-1 교구

· 권찰 / 정옥현

· 남집사 / 양승환 최수중

· 여집사 / 손기옥

11-2 교구

· 남집사 / 김준호

· 여집사 / 최명자

12-2 교구

· 남집사 / 양승일

13-1 교구

· 여집사 / 서옥단

13-2 교구

· 남집사 / 장동규

· 여집사 / 이무진녀

제1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하우 지도: 김창수

1. 영아부 / 부장: 김재균

지도: 정영희 부감: 최경남 서명숙

남교사 이명규 윤희택 이용권 김을필 박동희

여교사 장명자 박효순 김옥희 김순자 정진녀

송혜경 김미경 김미애 홍영길 이규숙 이선자

이선희 김경희 이희순 한희경 이마나 김복자

조숙임 정금자 이선희 권순옥 김지영 김미혜

이순영

2. 유아부 / 부장: 조인제

지도: 계선화 부감: 권명옥 이남숙

남교사 조승철 문원준 이세환 김상철 정재호

허 오 최춘홍

여교사 김국자 김현화 박미향 최수자 이명희

정애화 이은주 신은자 유미향 강소영 장정순

문인숙 박순숙 박복덕 이애영 이천애 정금선

김두연 이순복 김예순 김명기 김은희 전숙영

김영숙 김향진 구운정 안백희 송미경

3. 유치부 / 부장: 최상규

지도: 김정자 부감: 이동명 오화자

남교사 홍성옥 강봉기 김용대 장금줄 이창희

문창규 정두연 이호식 정승필

여교사 강영미 김윤주 박연자 강기영 강수연

김명희 기영미 김지남 이혜이 조혜옥 김영아

하미숙 이성호 문현옥 이숙현 민병옥 이진영

김순이 임승진 이혜숙 방현미 이태정 손주현

김영아 이현미 이순복 전금수 안명숙 조복연
홍명희 김경성 지아연 박미숙 노은영 강영옥
이홍자 전순희 유주옥 임현진 최금실 박영란
손유비 오경남 조미자 김영실 유현자 이명숙
김정희 손혜경 최혜정 조영미 김성희 고현숙
임은미

4. 초등1부 / 부장: 정광호

지도: 황정순 부감: 진홍용 이종영

남교사 김석재 박태근 홍치순 김경남 이승득

오순도 황인주 이성직 이영식 임병준 김승기

여교사 송영복 이연희 김옥자 임영숙 윤숙희

이영숙 유요종 이명자 이성민 이영미 소정자

김연옥 이상숙 이성옥 안강옥 박옥자 김금순

최은희 송정순 최계순 이경숙 김순련 변경심

이상금 김성록 김수진 김은자 서종남 마현미

이미화 이명은 이미안 백연숙

5. 초등2부 / 부장: 임무현

지도: 송향자 부감: 강철형 백영기

남교사 유홍수 이수호 이흥기 송태련 송병렬

손재홍 조규하 김열환 오해섭 이상일 최현계

한병구

여교사 문경숙 이영희 장의순 김영혜 이현영

성향록 최종남 윤마리아 이훈숙 양옥자 임복래

신성자 김현실 김혜선 김성희 백수진 임경숙

고경숙 선우영정 이인숙 신영희 김보옥 남영덕

김영화 임미자 구혜옥 김옥동 김영래 오정현

양승남

6. 초등3부 / 부장: 양종섭

지도: 오인숙 부감: 김영수 최하자

남교사 김성태 양국석 김운섭 박찬서 임재석

황태진 진양을 지중세 오경록 남승승 양병진

홍성철 김동석 김명민

여교사 심미정 이윤희 신재금 김정연 한정숙

박점숙 김지희 천은송 이지연 김세은 이인숙

이영숙 이상열 이영복 김송희 이지숙 전진경

김경희 오미라 박은주 염혜옥 정문지 박애희

김영숙 홍연래 함미자 신귀옥 김미란 김세은

7. 초등4부 / 부장: 윤팔일

지도: 윤인숙 부감: 김환기 김순실

남교사 허만선 이창영 박영기 최동삼 장지관

한석연 박재현 양승길 설병동 송두섭 이계혁

양한원 김기태

여교사 조정란 이정현 오은영 고진순 이정희

김규정 이미숙 노화선 최은희 이신자 김명주

오광순 진경숙 한성희 이복희 임정숙 한명자

김은자 강은재 원상희 김영옥 신경순 이영숙

이은희 한재신 김재순 정미순 최종분

8. 초등5부 / 부장: 이인상

지도: 김필수 부감: 전홍렬 김정자

남교사 송영준 한종남 장인희 문희식 황재현

이재학 이정태 정 진 홍택성 이인용 최성창

김재운 이석목 이상남 임덕일 전병선 정창원

이정생 이병두 조영구 김명철 양기수

여교사 최종란 남영순 전영희 박현정 박양덕

김유순 조순남 윤정희 우정길 이옥경 김수경

송명록 안지영 전진영 최경애 안금자 김미숙

김숙희 독고정란 강은미 이영실 최영옥 이성실

이복희

9. 초등6부 / 부장: 최명환

지도: 한용관 부감: 장주석 백영희

남교사 박광식 정재복 지성광 이부일 김황진

김기현 임대혁 편무산 신태홍 안지홍 남중호

오철민 전종일 박종운 김현규 권영훈 김영환

여교사 이영민 박영식 정재용

김종재 윤인숙 장영희 이명애 김인숙 허국현

박은숙 장원옥 김천순 정경애 조춘옥 이현정

장혜진 강은선 허옥남 이애란 이은경 김유희

박병수 정원남 정임순 김성자 이순애 윤영아

10. 중등1부 / 부장: 최무길

지도: 김희수 부감: 김지주 조옥환

남교사 조운성 송진국 이성근 김규석 신용한

김이철 지동준 윤여병 정신찬 이신동 이정기

김경진 정영수 정인근 원용철 김창국 김정구

김일생 이진호 정한봉 전동동 김창원 김상진

여교사 강은숙 김승옥 송선아 이미리 김경아

최인숙 권혜정 김말자 최영순 이은아 김은영

지인숙 신정순 김명숙 임선애 황선혜 김희정

이인선 신혜진 손순자 장성실 백광희 최정일

허옥남

11. 중등2부 / 부장: 윤성철

지도: 장상기 부감: 박철규 유호순

남교사 장현덕 박길배 조승희 윤병식 강남석

김병권 이병식 박범의 이상희 김영주 최진성

조종민 최남희 한승일 류종요 신광철 강태년

김종홍 이광우 문운수 김남식 권혁진 박태진

한광조 김준호 설규동 고법석 김태진 김규용
여교사 한은주 오순자 김성녀 노정숙 김경숙 김예성
김안주 강민희 김수영 김정임 박혜정 변평수
김정순 정은희 김수영 김정임 박혜정 변평수
김양자 유명숙

12. 중등3부 / 부장: 김중구

지도: 이홍성 부감: 한송규 최 규

남교사 손종원 박용기 김태홍 박관수 이종환

조성래 박우정 김용훈 이인광 오재일 이해철

신민식 박원영 류동호 정혁구 신재성 엄복섭

김영달 이영환 고순균 정한봉 이만영 김형일

현중봉

여교사 김신영 남은우 이영주 문미령 노혜경

이진모 김은주 유재춘 조순원 김부영 김희수

이상희 임부자 성명희 김영숙 고임순 명성희

김경희 이애숙 이순연 김복덕 이승순 고원희

장민화 함순려 이훈숙

13. 고등부 / 부장: 박영식

지도: 김창수 부감: 김단용 조혜순

남교사 민재환 김재호 최동욱 김광호 추홍호

강태영 전대연 최상만 송인섭 이종훈 김재경

유현동 이정철 신철우 김대웅 이흥우 이승계

박상대 신주홍 김경필 백의현 김희원 문영환

추상현 구재환 박용호 이형준 김낙균 이지환

윤해균 홍원석 조운진 김교동 김동엽 송원석

나길수 장우영 성백진 이원경 이상복 장석두

백 중 최정길 구승희 이성섭 정은식 김형길

염광호 윤종국 이상곤 송석근 박종울

여교사 유길자 전부자 장남희 이애나 마미경

신정순 여신자 박은주 홍순애 박도윤 문경희

조남숙 김복순 심진희 동지현 김연식 권수인

양순옥 김성주 김윤정 송영진 손명희 정희공

서은숙 이부영 이금희 정경희 성명선 조옥자

한 숙 장순복 김명신 송진경 정희경 임미영

제2 교육위원회

위원장: 손동운 지도: 장경철

1. 대학부 / 부장: 최성현

지도: 장봉생 부지도: 이준경

부감: 안석현 전명옥

남교사 노영환 김한원 김종권 권영전 김재호

이재옥 정수일

여교사 장희수

2. 청년 1부 / 부장: 이하영

지도: 정광옥 부감: 이형수 우순성

남교사 정태두 이찬옥 이명종 이상선 김인철

여교사 김석향 홍영숙

3. 청년 2부 / 부장: 엄팔성

지도: 김정우 부감: 임기재 박명엽

남교사 박종규 이학봉 최준호 김두선 안병호

신상수 남승승 한만교 정재모

여교사 임경순 한금자 김신자 석귀수 오경애

홍화숙 조숙진 박정수 박정란 정정희 최태옥

허해균 강순희 김정순 조주자 김영한 안태숙

박춘옥 김숙희 김숙자 이영애

4. 장년 1부 / 부장: 손경수

지도: 이한수 부감: 황의만 이순자

남교사 박정태 김영록 황현철 장영환 송효중

조종광 김연근 강만호 전계식 소재철 라승은

박종태 정찬국 이태식 김규종 김승곤

여교사 양명자 한숙원 원숙희 안정선 최영애

이희주 임경옥 김용섭 한정희 이순자 배철만

김경순 정순이 윤정식 신은소 강길례 이애자

윤병민 안찬자 채혜선 조연숙 이영자 신소자

5. 장년 2부 / 부장: 문홍구

지도: 윤영탁 부감: 이효섭 박효지

남교사 함용식 안성영 금호탁 이규선 전용해

표원식 진학래 이병영 오인근 이명희 장봉순

한준원 이상용 박문태 조철주 박종옥 최차용

최지운

여교사 정정자 신일순 임근애 심효숙 민병인

전옥희 안소현 한영숙 조금자 최봉숙 강겨안

김진만 김성도 차창숙 윤옥자 조분자 김옥희

이정순 김현옥 양숙자 한순희 유영희 이명근

박정순 이정순

6. 장년 3부 / 부장: 정운석

지도: 정규남 부감: 황영일 이의복

남교사 최만엽 김진섭 김은철 김경수 김용석

안노수 엄기정 주열호 백운홍 김광근 박상철

강진택 박호용 지규성 이두수 김도신 김세홍

정재복 김민채

여교사 이정애 이미애 장정숙 김동래 조향숙

김경순 김준자 정운순 유금순 김후진 이경순

